

No.50

Japan Weekly Digest

2010. 8. 30 ~ 9. 5

□ 금주의 이슈

- 차기 일본총리 선거전 돌입
- 르노닛산 곤CEO, 한국에서 생산 확대 시사
- 일본 우량 중소기업, 24에서 2개사로 급감
- 리튬전지 가격, 한일 경쟁 격화로 19%하락 전망

□ 일본 정재계 소식

- 요네쿠라 경단련회장, 금융완화대책 긍정 평가
- 정부, 추가경제대책 기본방침 발표
-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정책 발표

□ 경제산업성 및 기업 동향

- 나오히마 경산상, 에코 포인트 연장 시사
- 신성장전략 액션플랜100 발표
- 미쓰비시, 세계최대 美바텔연구소와 환경분야 제휴
- 고베제철, 인도에서 친환경제철소 건설

□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

- 뒤쳐지는 FTA, 흔들리는 경쟁력(닛케이)



협회 한일경제협회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>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
있사오며,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(Tel.02-3014-9888)

□ 금주의 이슈

○ 차기 일본총리 선거전 돌입

- 간·오자와 두 사람은 전면대립을 피하기 위해 31일 협상을 시도했으나, 집행부 인사 문제로 결렬되어 민주당 대표선거에 출마(14일 투표)
- 당내 최대 계파를 거느리고 있는 오자와 前간사장이 출마를 선언함으로써 민주당이 분열될지도 모른다는 위기 속에서 선거전에 돌입
- 총리의 중의원 선거 매니페스토 수정, 오자와씨의 「정치와 돈」문제, 부가세 증세, 엔고 문제에 대한 경제대책이 선거 이슈가 될 것으로 각 언론이 분석
- 닛케이조사에 의하면, 현재 **간 총리 73%, 오자와 前간사장 17%** 지지율 기록
 - * 선거에는 국회의원 412명, 지방의원 2,382명, 당원 34만2,493명이 참가
 - * 출정식에 오자와 측은 130명, 간 총리측은 114명이 참석(남은 170명 향방이 열쇠)

○ 르노닛산 곤CEO, 엔고 대응을 위해 한국에서 생산 확대를 시사

- 카를로스·곤 르노닛산 CEO는 엔고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국에서 생산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
- 곤 사장은 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언론 관계자들과의 인터뷰에서 「엔화 환율을 따져보면 한국에 생산능력이 있는 기업이 유리」하다고 강조하고 생산거점 분산을 시사
- 르노가 80%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르노·삼성은 부산공장에서 닛산 "SUNNY"를 생산한 경험이 있어 엔고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에서 생산을 확대할 방침
- * 르노는 8월10일 쌍용자동차 인수를 포기하였으나 한국에서 생산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었음

○ 일본 우량 중소기업, 24에서 2개사로 급감(한국은 20개사)

- 美포브스가 연간 매출이 10억 달러 미만인 아시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“우량기업” 200사를 발표
- 중국, 인도기업(71개사)이 50%이상을 차지한 반면, 일본기업은 2개사(태양전지 N·P·C, 자전거부품 아사히)로 작년 24개사보다 크게 줄어듦

○ 리튬전지 가격, 한일경쟁 격화로 19% 하락 전망

- IT종합연구소는 31일, 한일 간의 경쟁이 격화되어 리튬이온전지 가격이 09년에 비해 19% 가격 하락
- 언론 보도에 의하면 **리튬전지 회사의 적극적인 투자와 경쟁격화로** 가격하락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

□ 일본 정재계 소식

- 요네쿠라 경단련회장, 일본은행 금융완화대책 긍정적 평가
 - 요네쿠라 경단련회장은 일본은행의 추가 금융완화책에 대해 「대단히 좋은 타이밍으로 30조 엔이라는 규모도 적절하다. 엔고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 된다」고 평가
 - 환율에 대해 「기업은 환율안정이 가장 중요하다. 1달러=85엔 이상이 바람직하지만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않고 있다」라고 언급
 - 민주당 대표선거에 대해서는 「경제계는 신성장전략을 조기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. 간 총리 이후 처음으로 강한 경제, 세·재정,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발표했다」고 언급하고, 우회적으로 간 총리 지지를 표명
 - * 금융완화대책의 주요내용은 저금리 대출 규모를 20조 엔에서 30조 엔으로 확대
- 정부, 추가경제대책 기본방침 발표
 - 정부는 30일, 경제각료위원회에서 고용대책이나 소비확대 등을 중심으로 하는 추가경제대책 기본방침을 발표
 - 고용대책은 체험고용 인원을 3배로 늘려 중소기업과 학생을 적극적으로 연결시켜나가겠다는 내용
 - 소비촉진책으로 12월에 종료되는 가전·주택 에코 포인트를 연장
 - 정부와 경제계, 노동계 대표가 참가하는 「신성장전략실행추진회의」에 일본은행 총재 참가도 요청하고 정부, 일본은행, 민간 간의 연계를 강화시켜 나간다는 내용
-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 정책 발표
 - 간 총리 직속기관인 “고용대책특명팀”은 대학 졸업자 등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한 긴급 고용대책을 발표
 - 주요 내용은 대학졸업자를 3년 이내까지 신규 졸업자로 인정해 주고 시범적으로 채용한 기업은 장려금을 지원
 - 캐리어 카운슬러를 배치하는 대학을 250개교에서 500개교로 확대하여 학생들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고용안정센터에도 「대졸·고졸취업 잡 서포터」를 2배로 늘려서 배치
 - 각 현 노동국에 국가, 지방, 노사, 학교 등으로 구성된 「대졸자 취업지원 본부(가칭)」을 설치

□ 경제산업성 및 기업 동향

- 나오히마 경산상, 에코 포인트 3개월 연장 시사
 - 나오히마 경산상은 31일, 가전 에코 포인트제도 연장에 대해 「3개월 정도 연장할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」고 언급
 - 에코 포인트 대상상품은 액정TV, 냉장고, 에어컨이지만 어떤 상품을 대상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「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」고 언급
 - 연장기한이 3개월로 단축된 이유에 대해 「에코 제도는 수요를 선행시키는 것이고, 제도 폐지 이후 가전판매가 급격히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」라고 설명
- 「신성장전략 액션플랜100」 발표
 - 경제산업성은 30일, 「신성장전략 실행액션플랜 100」이라는 행동계획을 발표
 - 법인세 인하, 인재육성, 육아서비스 확충 등 정부가 발표한 「신성장전략 실행 추진회의(가칭)」를 통해 실천해 나갈 계획
 - * 아라이 국가전략장관은 「PDCA(계획·실행·검증·개선)를 철저한 추진을 위해 설치했다」고 언급
 - * 회의에는 총리, 각료 일본은행 총재, 기업경영자 등이 참가
 - 1번으로 선정된 법인세 개혁에서부터 100번의 공익법인재검토까지 개별 법률 개정, 세제개편, 규제개혁 등 필요한 조치를 명기하였음
- 미쓰비시, 세계최대 美바텔연구소와 환경분야 협력 제휴
 - 미쓰비시상사는 2일, 美바텔연구소와 지구환경분야에서 협력에 합의하고 환경관련사업에 공동투자하기로 했다고 발표
 - 同社は 「바텔의 환경기술 개발능력과 미쓰비시의 글로벌 사업전개력을 융합시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할 수 있다」고 제휴 배경을 설명
 - 구체적으로 이산화탄소를 회수하여 땅속에 저장하는 기술 등 바텔이 보유한 기술을 아시아지역에서 사업화하는 것이 목적
- 고베제강, 인도에서 친환경제철소 건설 발표
 - 고베제강은 31일, 인도의 국영 철광석회사 NMDC와 친환경제철소를 설립하는 MOU를 체결
 - 同社は 인도 국영 철강회사 SAIL과도 합작하여 연간 100만톤 규모의 제철소 건설도 구상하고 있어 실현될 경우 투자액은 400억 엔 정도가 될 전망

□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

뒤쳐지는 FTA, 흔들리는 경쟁력(닛케이)

2010.8.30

- 일본의 경제연계 교섭진행이 늦어지고 있음. 한국은 적극적으로 교섭을 진척시켜 일본 기업이 점유율을 빼앗기는 사태가 현실화
- 일본 기업이 미국이나 EU 등 주요국가·지역에 지불하고 있는 관세는 연간 2조엔. 엔고 등의 어려움 속에서 교섭정체가 계속되면 일본의 수출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

□ 뒤쳐지는 일본의 FTA

- 니와 우이치로 중국대사는 일본의 FTA협상 지연에 대해 강한 위기감을 표명
 - * 「빨리 일본이 중국과 FTA협상에 들어가야 한다. 그렇지 않으면 일본은 침몰 한다」
 - 일본이 체결한 EPA는 ASEAN등 11개국.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가 많음. 작년 민주당 정권 교체 이후에는 체결된 사례가 하나도 없음
- 일본의 수출액(2009년도)은 약59조엔. 경제산업성 통계에 의하면 일본 기업이 주요국가·지역에 지불하는 관세액은 **연간 2조 엔**
 - * 국가별로는 중국 7,500억 엔, EU 4,500억 엔, 미국 3,000억 엔

□ 앞서가는 한국의 FTA

- 일본이 EPA를 맺은 국가가 무역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6.5%. 교섭중인 국가를 포함해도 **36%정도**. 한편, 한국은 교섭중인 국가를 포함시키면 무역총액의 **60%를 초과함**
 - 한국은 미국, EU와 FTA에 서명하였고, 발효되면 EU는 5년 이내, 미국은 1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할 수 있음
 - * 아시아경제연구소 오쿠다 연구원에 의하면 일본은 한-EU FTA체결로 연간 9억200만 달러, 한-미에서는 5억2600만 달러의 수출을 한국 등에 빼앗길 것으로 예측
- **일본과 한국의 유사한 수출품**
 - 영국 연구기관에 의하면 EU에 수출하고 있는 제품 가운데 **한국 제품과 유사한 비율은 일본 70%, 미국 46%, 중국 50%**
 - 닛산의 시가 최고집행책임자는 「한국 자동차 회사가 신흥국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. 상품력이나 품질은 물론이고, 정부가 FTA를 추진하는 등 수출기업을 후원하고 있다. 일본이 배워야 할 부분이 많다」고 지적

【금주의 일본 주요 보고서】

- (1) 『엔고 영향에 관한 긴급조사』 경제산업성, 8월27일
*출처: <http://www.meti.go.jp/press/20100827001/20100827001-2.pdf>
- (2) 『09년도 중소기업 해외사업 실태조사』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, 8월30일
*출처: http://www.smrj.go.jp/keiei/dbps_data/_material/_b_0_keiei/kokusai/pdf/H21Report_Resume.pdf
- (3) 『신성장전략 액션플랜 100』 경제산업성, 8월31일
*출처: <http://www.meti.go.jp/committee/materials2/downloadfiles/g100830a03j.pdf>
- (4) 『엔고 대책: 금융정책은 유효인가』 제일생명경제연구소, 8월31일
*출처: <http://www.meti.go.jp/committee/materials2/downloadfiles/g100830a03j.pdf>
- (5) 『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달성하기 위해』 경제홍보센터, 9월1일
*출처: <http://www.maff.go.jp/primaff/koho/seika/review/pdf/primaffreview2010-37-7.pdf>
- (6) 『사우디의 원자력개발』 중동협력센터, 9월1일
*출처: <http://www.jccme.or.jp/japanese/11/pdf/11-19/11-01-129.pdf>
- (7) 『정부 신성장전략에 관한 설문조사』 규슈경제연합회, 9월2일
*출처: <http://www.kyukeiren.or.jp/files/topics/report/100902161343209.pdf>

【금주의 일정】

일 자	주 요 일 정
8월 30일(월)	○ 경제산업성 '11예산요구서 제출 (2.4%증가 1조4568엔)
8월 31일(화)	○ 경제대책 기본방침 내각결정 ○ 11년도 예산, 각 부처 예산요구 제출 기한 ○ 신성장전략 액션플랜 100발표(경산성) ○ 7월 매월근로통계조사 발표(후생성) ○ 7월 광공업 생산지수 발표(경산성)
9월 1일(수)	○ 민주당 대표선거 공고(14일 투표) ○ 오카무라 일본상공회의소 회장 기자회견 ○ 8월 백화점 매출 발표
9월 2일(목)	○ 8월 Monetary base 발표(일본은행)
9월 3일(금)	○ 제13회 일·중 경제심포지움 개최 ○ 4~6월 법인기업통계 발표(재무성)